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8. 20.(화) 14:00~16:00
- ▶ 장 소 : 서대문 구의회 제1회의실
- ▶ 참 석 자
 - 구의원 : 이종석, 주이삭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 김정철(위원장), 위정미(부위원장), 김석진(위원), 이상명(위원), 조충길(위원), 김혜미(위원)
 - 의회사무국 직원 및 관계자 : 권선상(의정팀장), 김기병(주무관), 유주봉(주무관), 윤진욱(여행사 관계자)
- ▶ 안 건
 1. 캐나다, 미국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독일, 덴마크, 스웨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위원장) 간사님께서서는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중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김정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럼 10분정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니다. 먼저 본 회의의 간사이신 의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김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2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 출장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미국, 캐나다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도시재생 및 복지분야 관련 우수사례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다음은 출장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7박10일 일정이며 출장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참여인원은 의장님을 포함 총 10분입니다.

- 공식방문기관으로는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대규모 지하공간, 토론토 시청사, 나이아가라의 하수처리장, 미국의 보스턴 도시재개발청과 뉴욕 시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뉴욕 공립도서관 등 입니다.

- 다음은 소요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당 총 소요경비 산출금액은 3,785,160원으로 이중 3,500,000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여행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10월 5일 오전에 도착하는 7박 10일 일정입니다.

- 첫날인 9월 26일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오후에 토론토 패스 대규모 지하공간을 방문하여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듣고 시설물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9월 27일에는 오전에 토론토 시청을 방문 복지분야 및 하수처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정책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오후에는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으로 이동, 관로시스템 운영실태 및 수질관리 방안을 듣고 관계자들과 면담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은 공식일정은 없고 나이아가라에서 킹스톤으로 이동, 관광자원 운영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9월 29일 일요일은 캐나다 수도 오타와 의회연방 의사당 상원의원회관을 방문, 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9월 30일에는 몬트리올 지하도시유지관리기관(RESO)을 방문하여 지하공간 시설물 운영시스템 및 안전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에는 보스턴 도시재개발청을 방문하여 빅

덕 프로젝트 개발배경 및 추진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오후에는 프리덤트레일코스를 현장 방문하여 선진 관광시스템을 배울 예정입니다. 10월 2일에는 뉴욕시의 회를 방문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듣고 의정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오후에는 뉴욕 노인복지시설과 더 하이라인을 방문하여 도시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10월3일에는 뉴욕공립도서관을 방문 도서검색 시스템 및 시설운동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4일 뉴욕케네디 공항을 출발하여 10월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수자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입니다.

총 10분 중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공무국외출장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시고, 나머지 일곱 분은 위원회 관련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시스템 소관자료 벤치마킹은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시고, 토론토 시청 복지분야 관련 벤치마킹은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뉴욕 노인복지시설 자료수집 및 선진사례벤치마킹은 안한희 의원님, 지하공간 재난관리시스템 벤치마킹은 이종석 의원님, 뉴욕 공립도서관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은 양리리 의원님, 지하도시유지관리분야 벤치마킹은 이동화 의원님, 보스턴 도시재생분야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은 김덕현 의원님,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은 최원석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 다음은 개인별 여행경비입니다. 2019. 8. 5.기준 1달러당 1,216원으로 산출하였고, 산출근거는 서울시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임은 1,640,000원, 일비 364,800원, 식비 654,200원, 숙박비 1,076,150원 등으로, 의원기준 1인당 총 3,785,16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지원예산은 3,500,000원으로 초과하는 나머지 비용은 의원 개인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출장효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동부 선진도시 등을 방문하여 재난관리시스템 및 지하공간 운영상황,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노인복지시설, 뉴욕공립도서관 운영체계, 공공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지금까지 간사께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자료를 보면서 사안에 대하여 하나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와 미국 공무국외출장 관련 첫 번째 안건 심사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우리 이종석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사항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은

의정팀장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캐나다와 미국의 도시재생정책 해외사례 및 복지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구 주력 사업 및 중요 정책의 적용가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장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10명을 출장자로, 개인별 업무 내용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심사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저는 굉장히 잘 짜여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접촉 예정 인물에 대한 부분이 이게 확실하게 FIX가 된 건가요?

(○○○ 의원) 어떤 거...?

(○○○ 위원) 캐나다나 도착지 해서 어디어디를 경유하고 방문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문기관이 다 fix가 된 거냐고요?

(○○○ 의원) 다 된 건 아닙니다. 일부는 진행중인 것도 있고요.

(○○○ 위원) 어떠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확정되고 어떤 부분이 안된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의원) 공식방문기관은 8개 기관이며, 4개소는 섭외가 완료되었습니다. 섭외기관으로는 보스턴 도시재개발청, 뉴워크 시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뉴욕공립도서관입니다. 다음에 캐나다 지역기관 4개소 중 1개소는 섭외가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현재 협의 중입니다. 섭외가 완료된 기관은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이며, 협의 진행중인 기관은 토론토 시청과 토론토 PATH, 몬트리올 지하철도시 유지관리 기관입니다. 토론토 시청은 세부적인 복지서비스 부서 선정을 위해 현재 협의 중이며, 토론토 PATH 및 몬트리올 지하철도시 유지관리 기관은 우리구 홍제역 지하철보행네트워크와 언더그라운드 시티 사례가 있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교환 중입니다.

(○○○ 위원) 그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를 갔어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안됐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은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지역 주민에게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FIX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거가 꼭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실 경우에는...

(○○○ 의원) 캐나다나 이쪽 기관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표명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꼭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위원) 의원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서대문구에서 추진중인 주력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플랜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력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그거랑 매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의원) 청장님이 이번에 3선하시면서 하시는게 뭐냐면요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홍제역에 보행네트워크라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규모가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겸 또 안전시스템이 있어요. 점점을 같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 위원) 그러면 빅 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처리하는...

(○○○ 의원) 하수처리 말고요. 보행네트워크는 캐나다에 있는 기관을 말씀드리는데요.

(○○○ 위원) 빅 딕 얘기 하시는 거 아니...

(○○○ 의원) 토론토 패스...

(○○○ 위원) 토론토 패스요?

(○○○ 의원) 네. 나머지는 위원회별로 관심분야... 도서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관을 선정한 겁니다.

(○○○ 위원) 그러면 뉴워크 시티 카운슬 오피스하고는 접촉인물이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면 시티 카운슬에 커미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어떤 파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신 건지?

(○○○ 의원) 아직은 의회나 기관은 섭외가 됐는데 어떤 분이 나올지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야 카테고리 안에서 인물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가 커미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시티 카운슬에. 그래서 그 커미티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커미티 분하고 만나야 그래야 알고 싶은 걸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미티 어디 소속의 분하고 어떤 커미티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의정팀장)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세부적인 커미티 분야는 저희가 컨택을 하겠습니다.

(○○○ 위원) 아니요 아까 정해지셨다고 해서...

(의정팀장) 시설만. 시설만...

(○○○ 의원) 미국 지역의 4개소, 도시재개발청, 뉴워크시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뉴욕 공립도서관

(위원장) 이 3군데가 확정이 되었던 말이죠

(○○○ 의원) 네. 캐나다에서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 토론토 패스, 토론토 시청, 몬트리얼 지하도시 유지관리...

(○○○위원) 일부가 결정되었던 말이죠

(○○○ 의원) 네

(○○○위원) 결정 안된 데가 그러면 캐나다...

(○○○ 의원) 토론토 시청은 협의 중에 있고요. 토론토 패스 및 몬트리얼 지하도시 유지관리기관은 관련 사례를 요청해가지고 지금 자료 교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행사에서도 보충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 위원) 그러면은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방문기관에서 오케이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일단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과정도 여행사에서 관여를 합니까?

(○○○) 관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행사에서 섭외 수배 자체가 안되는 곳도 있긴 합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 현재 확정된 곳의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패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 관할이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공문서를 내서 수배가 안되거든요. 근데 토론토 패스 같은 경우 서대문구 청에서 예전에 다녀갔던 기록이 있어서 그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컨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곳을 말씀드리면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이 지금 방문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몬트리올 RESO 같은 지하도시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몬트리올 RESO는 협의 중에 있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보스턴 재개발청은 이제 방문 확정이 됐습니다. 보스턴 재개발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슬럼화된 도시를 한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총개발한, 30년동안 개발하고 있는, 현재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보스턴 재개발청은 확정이 됐고요. 뉴워크 시티카운슬은 현재 시간만 조율중에 있습니다. 언제 가면 좋을지, 그리고 담당부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부서별로 카운슬 파트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만약에 복지분야냐 아니면 도시재생분야냐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공문을 제출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궁금하니 그쪽에서 담당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재 시간은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뉴욕쪽에서 뉴욕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낮에 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 위원) 그런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는가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저희가 관여되고 있는 곳은 캐나다에 토론토 시청과 그리고 토론토 패스

는 저희가 관여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욕시립도서관쪽은 관여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저희 여행사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럼 팀장님. 방문하는 여기 모든 기관에 서대문구의회 공식 명칭으로 공식문서가 나갔습니까? 공식 협조공문이 나갔나...의회에서

(○○○) 안녕하십니까. 의정팀 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8개 공식 기관에 영문공문을 의회명의로 작성을 해서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발송을 한 공문을 가지고 일부 미국쪽은 여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는 토론토 패스하고 토론토 시청, 뉴욕 공립도서관 쪽을 진행하고 있고요.

(○○○ 위원)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 의원) 버스로 주로 이동을 합니다. 28인승 버스를 협의해 났습니다.

(○○○ 위원) 근데 지금 일정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9월 26일이면 이제 한달 남짓 남았는데 사실 한달 전에도 아직 10개가 넘는 곳 중에 확정된 곳이 4개밖에 안되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안되어가지고 핑크가 나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핑크나는 거를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심사해 놓고. 우리는 되는 걸로 알고 심사를 했는데.

(○○○ 의원) 4군데 같은 경우에는... 안 된 데를 설명드리면요. 벤치마킹...눈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그거는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건 아니지요.

(○○○ 의원) 보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 위원) 지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까지 돈을 써서 가서 견학을 한다는 것은, 눈으로 쓰윽 보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내면을 정확하게 보고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눈으로 훑어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계획이 없어도 보여주고 해요. 그런데 외국사람들은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쪽에서 허락이 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NO입니다. 눈으로도 못봐요.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아니지...

(○○○ 의원) 일단은 섭외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섭외가 안된다 하면 답변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캐나다하고 미국쪽은 하루에 1기관은 기관방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8군데 공식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현장을 벤치마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8개 공식기관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는 이미 섭외가 완료가 되었

고, 3개 기관은 저희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론토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서에서 서대문구에서 비슷한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니 그쪽 자료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교환을 하면서 섭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론토 시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자세하게 노인이면 노인, 아동 청소년 세부분야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설명을 해준다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교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섭외가 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5개 기관은 확정이 됐고, 3개 기관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 교환을 했고, 섭외가 확정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장소는 현장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섭외가 필요없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9월 28일하고 29일 공휴일에 지금 3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휴일이면 그쪽 기관에 협조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 공휴일에는 기관섭외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일정은 저희가 빼여 있는데요. 오타와 의회같은 경우는 일반 해설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나오거나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예정입니다.

(○○○ 위원) 일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나 이쪽은 해설사분들이 있으시듯이 그쪽의회에서도 주말이기 때문에 관계자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설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와서 그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8개 기관에 주말부분 오타와 연방 의회는 빠져있습니다. 말그대로 8개 공식 기관은 통역을 대동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주말같은 그런 부분은 공식기관에서는 빼는 대신에 벤치마킹 위주로 일반 통역을 대동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근데 29일을 보면 오타와 의회연방의사당 상원의원회관 방문, 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물을 보고 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의회라면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봐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 건물을 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해설사분이 계셔가지고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걸로...

(○○○ 위원) 관계되는 분이란 게 의회관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 의회에 소속된 분이긴 하신데요

(○○○ 위원)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의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목적을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고 벤치마킹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안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닌거야.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 저희가 8개 공식 기관에서 주말에 있는 오타와 연방 의회는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1일 1기관 공식방문을 가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 벤치마킹 위주로 현장시찰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들어와 있는 거지 공식적인 기관방문에 포함된 기관은 아닙니다.

(○○○ 위원) 위원들별로 과제가 주어졌는데 다녀오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저희도 나와서 저희와도 공유가 다 되나요?

(○○○ 의원) 네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을 보면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의 경우 선진 의회 운영시스템 소관 자료 수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 일정에 없으면서요. 공휴일에 공식일정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돼.

(○○○ 의원) 미국 의회쪽에 공식일정이 있습니다.

(○○○ 위원) 1,2,3,4는 공식일정이고 가나다라는 공휴일이지만 놀지 않고 그래도 관심갖고 살펴보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위원장) 세미나 식으로 담당자와 회의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뒤에 보면 방문지에 대한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미흡하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주어진 업무내용을 각 의원님들이 맡은 내용을 이 방문지에 대한 데이터를 여행사에서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내용에 대해서는 뭘 알고 싶고 뭘 질문하고 싶고 뭘 중점적으로 볼 건가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야 우리가 볼때도 아...가서 할 일이 이런 게 있구나, 관광도 하지만 중점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의 뭔가 도움이 되는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배워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요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문국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데 말은바 업무 내용을 의원님들이 실제로 더 조사를 하고 더 여기에 대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삽입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면 가더라도 감을 잡고 가잖아요. 하수처리 무슨 수질...시청가서 시청은 서울시청이나 거기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똑같겠지만 안그렇거든요. 모든 재개발, 도서관, 복지... 안그래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틀린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를 한번 더 연구하고 가면 거기 가서 쉬워진다는 거죠. 어차피 거기 가서 세미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가서 한마디 하면 두마디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한마디하는데 한마디도 못알아들으면 그건 가나다나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

(○○○ 위원)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못할 이유 없어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요. 저희가 여기에 심사하러 왔는데, 여기 일정을 보면 무리 없이 잘 짜여져 있어요. 잘 짜여져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세미나 일정을 넣으십시오. 공식적인 일정에다가 넣으시면, 아 이분들이 여기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여기 정말 잘 짜여졌어요. 이보다 잘 짤 수 없어요. 이 지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나이가가라...가서 관계자들하고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세미나를 했다 그거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구를 위해 이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못 넣은다고 하는데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넣는게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더 좋고 갔다오셔가지고 자료를 할 때에도 훨씬 더 공부하는 의회, 아 심사위원들이 참 심사를 잘 했구나 할 거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 위원) 그래서 가신다는 데를 제가 다 인터넷 서치를 했더니 리포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정도에 이쪽 파트를 누가 다 가셨었나봐요. 구글에 들어가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뽑아가시고 거기에 디벨롭판을 만들어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알 수...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보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뒤질 수 있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뒤져봤는데, 그러면 이런 정도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질문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가지 않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버전 업을 한 그런 식의 계획과 실행 그런 게 있으면 가서도 짧은 시간이라도 해 가지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커미티 만나서 그런 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하수처리장 하면 거기에 그런 것만 있는대를 모아서 가서 그거 한 프로젝트로 해서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다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해 놓으셨지만 파고들면 허점들이 좀 보이니까 구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니까 나중에 디펜스하실 수 있게 마련이 되면, 가서서 너무 애쓰시는데 기왕에 결과도 좋고 본인들도 그렇고 남보기에도 좀 있어보이게 가시면 좋겠다...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이전에 사전 스터디를 좀 철저히 하고요. 보고 난 다음에도 사후보고서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잘 다녀오세요. 근데 갔다와서 유일하게 저만 보고회를 했어요. 제

대로 갔다 오시고 주민들에게 하루 날 잡아서 보고회를 하시고 거기에 맡으신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지역에 어떤 부분을 바꿔나가겠다 것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 모르면 가서 뭘 볼지도 알 수 없고, 모르면 볼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고 채널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낼 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미리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 중에 우리에게 답이 온 게 있는지?

(○○○) 영문으로 요청한 공문에는 주요 질문 크게 세네가지 큰 틀로 요청이 되어 있고요. 답변 온 것은 캐나다쪽 기관이 지금 협의중인데 요청이 와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한 곳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그래서 가시기 전에 우리가 가야할 그곳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의 자료를 미리 받아서 공부를 하고 가야 우리가 뭘 봐야할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 없이 현장 가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도 내가 가는 그곳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미리 알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사전지식 없이 들으면 몰라요.

(○○○ 의원) 심사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세미나를 해서 1~2회 교육을 받아가지고 소홀함이 없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 일정이 의원님들에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내가 다녀본 경험이 있어 버스로 이동한다면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버스 대신 국내선 비행기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에서 오타와까지는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갔을 때에는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오타와에서 퀘벡 가는 시간이 5시간 걸립니다.

(○○○ 위원) 버스와 비행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의원 10분 말고도 의회에서 모시가 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 14명? 그럼 중간에 비행기 한 번 타십시오.

(○○○)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어서...

(○○○ 위원) 나중에 의논하셔서 비행기 한 번 타셔야지.... 버스로만 가는 것은 정말 ...

(○○○ 의원) 지나만 가더라도 공부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보다 후진국을 가더라도 아 이나라가 왜 후졌는지 왜 나쁜지를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정이 좀 빡빡하지만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을 하거든요. 또 이동하면서도 각 도시를 보면서 차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위원님들 총체적인 말씀은 사전계획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거기 가서도 얻고자 하는 자료를 잘 구하시고, 또 귀국 후에도 의원님들 지역에 결과보고를 간단히 서면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고회 정도? 우리가 여기 사전 심의를 했으면 우리도 갔다왔으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다음에 또 갈때에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남기는 의미에서 그런 결과보고가 잘 되어 하지 않나...그런 의미에서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시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동거리가 5시간이 넘으면 정말 지겹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뭐 정해진 시간에도 그 나라의 역사 공부라던가 이런 거 여행사에서 철저히 더 준비해서 의원들이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게끔 자료를 많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하셔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부분은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죠?(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 위원) 보고회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네

(위원장)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사사항을...지금 첫 번째 심사사항에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장국가는 캐나다와 미국이고 중요기관 방문 예정지는 8개소, 기관 방문지 및 방문의 목적, 주요 현장 벤치마킹 및 관련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심의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혹시 미비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김○○ 위원) 접촉 예정인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이나 토일이 켜 있어요. 사실은 갔다오셔서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현장방문이라는 게 공식적인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꺼는 그래서 일정이 팽참았다. 토 일이 한번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만 공휴일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두 번입니다. 10월 5일, 6일 코펜하겐, 코펜하겐이 있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첫 번째 하실 때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적합한 거로 넘어가고. 다음 세 번째 심사사항은 공무국외출장의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출장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이며 출장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규정과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출장 의원 10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인 35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여비기준에 따라 항공료는 실비로, 일비 및 식비, 숙박비는 국외여비기준 기준표에 따라 국가 및 도시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행사가 어딘가요?

(○○○) 단하나 여행사입니다.

(○○○ 위원) 여비 이정도면 의원님들 가서서 푸대접 받아요.

(○○○ 의원) 추가비용이 있긴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철저히 개인부담으로 해서... 제가 이 비용만 쓰는 게 아니라 추가비용이 있어요.

(위원장) 이 규정은 서대문규정에 딱 못박아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번에 가실 때 추가비용 내셔야 될 걸요? 얼마정도 내시죠?

(○○○ 의원) 3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마 더...

(위원장) 1인당?

(○○○ 의원) 네.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30만원이라도 내시니까 또 내 돈 주고 가시니까 떳떳하시네. 350만원 내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보고, 또 시간이 짧아요? 7박 10일이면요? 너무 짧아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서 시차적응하랴 차 타고 대여섯 시간씩 가라 정신없습니다.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요.

공무국외출장의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여러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럼 공무국외출장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부분은 적합한 것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심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출장국으로 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타당성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아까 제가 했지만 의원님들이 맡은바 업무 있잖아요? 업무내용을 의원님들이 세세히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을 공유하고 의원님들이 간담회식으로 해서 이런 의견이라면, 이런 걸 알고 싶다...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간사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번에 가시는 의원님들이 꼭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

서 정식으로 주기보다는 우리 카톡이나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캐나다와 미국 출장국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달아서 할까요? 한 10분간 설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남은 기간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독일, 덴마크, 스웨덴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목적은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도시의 에너지, 교통, 쓰레기 등 생활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도 함께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과 특성에 맞게 접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출장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9박11일 일정이며 출장지역은 독일, 덴마크 및 스웨덴이고 참여 인원은 총 4분입니다.

- 방문기관으로는 프라이부르크시청, 말뫼시청, 코펜하겐 시청,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 덴마크 공립학교, 노인복지주택 등입니다.

- 다음은 소요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당 총 소요경비는 4백2만원으로 이중 3백5십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2만원은 자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출장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인천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10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9박 11일 일정입니다. 첫날인 9월 27일은 17시 40분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예정입니다. 9월 28일 오전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를 타고 프라이부르크로 이동하고 오후에는 리젤펠트 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 약자를 위한 ‘무장애’ 공간 등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9월 29일 오전에는 프라이부르크의 다른 생태지구인 보봉지구를 방문하여 대표적인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인 헬리오트롭 등 친환경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을 하고 오후에는 중앙역 부근 자전거 주차장 모빌레를 방문하여 자전거 정책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오전에는 프라이부르크시 환경보호국 관계자를 만나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해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친환경 교육기관인 에코스테이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에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는 기차로 이동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코펜하겐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오전에는 스웨덴 말뫼시 도시발전전략국 관계자를 만나 말뫼시의 도시재생 사례, 스타트업, 대학과의 연계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오후에는 터닝 토르소, 말뫼대학교, 창업인큐베이터 ‘밍크’, 창업지원센터 등의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을 가질 예정입니다.

10월 3일 오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 복지부서 관계자를 만나 덴마크 노인복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하여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4일 오전에는 공립학교인 외레스타드 스콜레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학생 친화적인 교육시설과 교육콘텐츠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를 방문하여 덴마크 청소년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의제를 설정하는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0월 5일 오전에는 방치된 공공부지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재생을 이룬 스페르킬렌 공원을 현장방문하고 오후에는 과거 항구노동자들의 도시에서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모한 도시재생 지역인 니하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6일 코펜하겐 공항을 출발하여 10월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수자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입니다.

총 4분중 재정건설위원장님은 공무국외출장을 총괄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도시별로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이경선 의원님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차승연 의원님은 스웨덴 말뫼에 대한 자료조사 및 벤치마킹, 주이삭 의원님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대한 자료조사 및 벤치마킹을 하시게 됩니다.

- 다음은 개인별 여행경비입니다. 2019. 8. 19. 기준 1달러당 1,232원으로 산출하였고, 산출근거는 서울시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임은 1,558,700원, 일비 406,656원, 식비 727,051원, 숙박비 1,297,601원, 원단위 절사하고 총 1인당 4,020,000원이 소요됩니다. 지원예산은 3,500,000원으로 초과하는 나머지 비용은 의원 개인별 부담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출장효과입니다. 우수한 도시재생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 및 지식과 정보를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활용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독일, 덴마크 및 스웨덴 출장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전체적인 질문사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 위원님.

(○○○ 위원) ○○○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각 의원별로 도시별로 업무분장을 했어요? 근데 이건 도시별 업무분장 보다 내용별 업무분장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9월 30일 친환경교육기관이 있고, 10월 2일 말뚝 도시재생 생태도시 기관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코펜하겐에 방치된 공공부지 도시재생 사례 현장방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 생태도시를 한 사람이 맡고, 연관된 업무별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시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 이 도시는 내 담당이 아니니까 적당히 스쳐가고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 성격별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의원) 같이 가는 4명의 의원 구성을 보시면 세 분이 재정건설위원회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1명입니다. 복지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전부 덴마크에 있어서요, 제가 덴마크를 집중적으로 맡고, 다른 도시들이 어차피 도시재생 관련해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큰 주제별로 묶는 걸 감안해서 도시를 나눈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1차 의원 간담회 등 의원 간담회 개최가 있잖아요. 이 내용은 가시는 분들끼리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시는 거예요, 이거의 목표는 뭔가요?

(○○○ 의원) 그렇죠, 1차부터 3차까지 간담회가 개최되기 전에 계속 인터뷰 안에 있는 현장방문이라던가 기관방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각자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바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각자 느낀 것들을.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새롭게 발견한 거라던지, 놓쳤던 부분들을 다른 의원들이 본 시각에서 의견을 듣고 함께 정리를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인스타 라이브라던가 페이스북라이브 같은 생중계 같은 것들을 해서 주민들과 바로바로 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위원) 혹시 여기 미정으로 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같이 조인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원) 3차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기관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섭외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섭외를 진행하는데 의원들이 각자 공부를 해서 갖고 온 도시들과 현장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역이나 기관 섭외해주시는 업체, 덴마크나 스웨덴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주로 프라이부르크 쪽과 관계가 있는 그런 섭외능력 있는 분들을 했는데, 프라이부르크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덴마크, 스웨덴 현지에 있는 섭외를 해 주신 그분, 통역을 하면서 현장을 같이 가실 계획이거든요, 그분이. 그분과 함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관계자는 사실 그분들도 각자 시간이 다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여기에 미정이라는 컨택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 의원) 컨택...은 정확히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게

(○○○ 위원) 아니 누구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관에, 대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인지

(○○○ 의원) 그 기관의 책임자든 실무자든 그분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기관 섭외가 되어야지 그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친환경에너지정책국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에너지정책, 생태도시 등 현장방문을 했고, 거기에 있는 분을 만난다 하면, 관계자가 친환경에너지정책국의 누구...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 의원) 그렇죠. 환경보호국의 누구...입니다.

(○○○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이신 것 같은데요.

(○○○ 의원) 프라이부르크 안에서요?

(○○○ 위원) 아니 도시는 그런데, 카테고리 3개니까. 그 3개에 관한 관계자를 보는 건데, 업무분장이 도시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도시에서 전체적인 거를 들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건가요?

(○○○ 의원) 그렇죠.

(○○○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분장을 했을 때 장점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대신 기능적으로 불라고 하면 그거는 또 관계자 자체가 3 카테고리를 다 컨트롤해야지만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 의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 이번 출장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도시재생, 복지 등 모든 것이 도시계획,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여

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 오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고, 복지고, 환경이고 이 모든 것을...

(○○○ 위원)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거기서 특별히 어떤 부분은 보고서를 쓰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describe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포커스 해가지고 봤던 점을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누군가를 만난 사람은 전문가여야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의원) 전문적이라고 하면

(○○○ 위원) 안 그러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굳이 제 생각에는 특별히 뭘 봐야겠다는 초점이 없으니까 누구를 컨택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러다보니

(○○○ 의원) 아니요. 일단 프라이부르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먼저 현장에 가서 현지에서 통역이 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정이었다가 현재 프라이부르크시의 공무원이신 분이 있는데, 저희 이경선 의원님의 일종의 연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말에 저희와 함께 다니며 통역을 도와주실 분이세요. 또 이분이...만약에 저희가 기관섭외를 못하면 이분하고 주민 분들하고 현지에서 간담회든 질의응답이든 바로 진행할 계획인데, 어쨌든 현장방문을 다 진행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프라이부르크 환경보호국에서 각종 도시재생을 추진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 가는 거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현장에 대한, 현장을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 위원) 느낌을 보러 가신다는 얘긴가요?

(○○○ 의원) 느낌이에요?

(○○○ 위원) 네

(○○○ 의원) 느낌이라기보다, 여기의 철학은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저희 서대문구의 도시재생이 크게 북가좌, 홍제동, 천연동...

(○○○ 위원) 제가 보통 생각할 때는 2가지 어프로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서대문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철학. 그걸 보러가신다는, 그걸 정하기 위해 다른 도시를 보러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 의원) 네. 그 내용이 들어있지요.

(○○○ 위원) 근데 그러려고 하면 각론이...저희가 심사를 해야하는 이 상황에서는 초점이 뭔가 있어서,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서대문구라는 도시가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초점으로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써 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가지에 관계되신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철

학을 가지고 도시 재생에 관여를 했었는지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 일반인이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알 수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그냥 공무원, 몇 급인지는 모르는 공무원, 무슨 담당인지도 모르는 그런 식. 그니까 우리가 지양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여행간 것 같지 않게, 일하러 간 것 같은. 그거를 가져 오라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여행간 걸로 보인다는 거죠.

(○○○ 의원)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정책을 총괄을 하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생태도시, 에너지 자립, 저희 혁신지구 이번에 최초로 선정되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 위주거든요. 이런 내용의 전문가를 최대한 섭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저희가 그 마을에 가는 이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 뭘 접목을 할 거고...

(○○○ 위원) 봤는데요, 말뚝 이러면 거기에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런 분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왜 가냐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냐 굳이, 인터넷 뒤흔면 다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철학을 얻고 싶다고 해도, 그런 분을 만나야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지, 일반인을 만나면 그냥 이펙트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의원) 말씀하신 교수님을 저희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그 분을 한번 컨택을 해보려고 논의도 해봤고,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섭외해서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바에는 그냥 다니는 게 낫겠다, 현지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 위원) 그 분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면 더 좋죠. 스페셜하게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런 분을 컨택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 의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이왕이면 현지 전문가도 같이 좋겠다는...좋습니다.

(○○○ 위원) 또 미정인 분들을 누구를 할거냐..그러면 그냥 랜덤한 누구 말고 스페셜한 누구로 해서...그렇기 때문에 이펙트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 아시겠지만, 이건 심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정, 미정, 미정... 이런 걸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3차 회의를 8월 5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한 이후에 저희가 바로 기관섭외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심사위원회가 저희는 26일이나...저희가 출발하는 게 앞팀은

9월 26일에 출발을 하고 저희는 27일에 출발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추진이 됐는데. 8월 5일에 막상 추진을 했는데 현지 기관이 본인들이 출장을 갔다고 해서 8월 13일부터 섭외가 진행되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일정을 보면 토요일, 토요일이 두 번 겹쳐 있고, 또 10월 1일은 이동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이동이 너무 많다보니 국이 너무 많다 보니, 나라가 너무 많다보니. 서대문이 문제가 됐던 건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전대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많이 힘들어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이걸 보고. 혹시 외국은 이 짧은 시간에 접촉할 수 있는 예정 공무원에 대한 부분 픽스하기가 한달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더 일찍 그분에 대한 거를 의논하고 갔어야 하는게 맞는 거고, 미정미정미정 다 미정인데, 이걸 심의하는 저희로서 이걸 어떻게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좋아요. 업무에 대한 부분, 방문하는 거에 대한 부분 다 좋은데, 그러면 방문기관이 다 픽스가 된 거냐 물어보고 싶고요. 픽스가 되면 외국기관은 거기의 담당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 그냥 곁에만 보고 오는 거예요. 혹시나 스웨덴, 제가 다녀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접촉하는 그 기관의 사람들이 다 픽스가 되어서 갔어요. 물론 시민단체와 갔다와서 그런 게 없지않아 있지만. 영역이 같은 복지라고 해도 청소년, 노인하고 있으면 업무담당이 다 달라요. 그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해서 가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저희가 심의해서 가고 ok를 해 버리면, 심의한 저희가 주민들한테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봅니다.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공부하시고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 픽스가 되지 않고 가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앞팀들은 다 기관에 누가 어느 정도 픽스가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여행사가 없으세요?

(○○○ 의원) 여행사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끼리 준비한 겁니다.

(위원장) 통역은 누가 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 그러면 기관에 가서 접촉할 사람이 아직까지 안 되었던 거 아니에요.

(○○○ 의원) 현재 접촉 중입니다.

(위원장) 그게 계획은 되어 있고, 될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게, 프라이부르크랑, 덴마크 스웨덴이 따로 섭외 기

관을 두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대안정책연구소에서 이번 주중에 최종적으로 섭외 확인을 받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분들이 여기 한 기관들, 그리고 국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섭외를 추진한 기관들이 다 있는데요, 대한민국 의뢰기관이 교육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61개 기관이 추진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덴마크와 말되는 바로 붙어있습니다. 아까 나라가 세군데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거리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개로 봐 주시면 되는데,

(위원장) 의원님, 지금 가서 접촉할 인물이라는 건, 예를들어 노인복지다, 덴마크 교육현장 기관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해 주고 거기 관계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 의원) 그러니까 현재 섭외기관에게 맡겨놓은 상태니까요, 저희가 언어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관이 그간 열심히 해온 데고요, 덴마크 주 대사관에 통역자랑 섭외 전문적으로 하는 명단에 포함되신 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공신력 있는 곳이고, 이번 주 안에 섭외가 최종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잘 되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면 우리가 다시 모일 수는 없으니까, 준비가 잘 되시면 저희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인이 돼서 심사를 한번 더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하면 이걸 도장찍으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예, 저도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 위원)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공무국외출장 심사 관련해서 규칙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한 의원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가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안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준비했던 기간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상 아직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만큼, 저희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기관이거든요, 섭외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채워서 서면결의를 나중에 해 주시면 그러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분만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미정, 미정되니까, 여행사도 안 끼고...직원 두분이 따라가시나요? 동행을 하나요? 그럼 여섯 분이 가시는 건데, 이 여섯 분이 가시려는 목적이 있습니까? 미국하고

캐나다가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그건 이제 적합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네분 의원님들 해서 두 분의 공무원이 수행을 해서 같이 여섯 분만 간다는 어떤 목적. 꼭 우리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을 꼭 봐야하겠다는 목적은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미비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조금 설득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다시 좀 하시고 미정된 접촉에 상인물을 빨리 확정하시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메일로 주시면, 메일에서 각자 적합, 부적합 의견을 내시면, 우리 일곱분 중에 과반수 이상이 되면 적합, 부적합을 결정하기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여행사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보통 10명의 출장자가 있어야 이분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데, 저희 예산으로는 10명 이상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끼리 추진하다보니, 기존에는 다 여행사로 했던 거에 비해서 아마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 위원) 지금 여기에 방문 기관이 있는데, 요 방문기관에 서대문구의회 이름으로 공식 공문이 발송이 되었죠?

(○○○) 프라이부르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서 발송이 된 상태이고요, 덴마크, 스웨덴은 섭외하는 기관에서 그런 요청을 안 하고 스스로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그쪽은 공문발송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그거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섭외하는 기관에다가 맡겨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섭외하는 기관이 다르고, 서대문구의회가 다른 건데. 나라 대 나라에 있어서 이걸 단순히 도시 대 도시가 아니에요. 나라 대 나라예요. 근데 공식 공문도 발송 안했다 하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 기관에서 또 메일이 왔는데, 저희 직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영문으로 요청을 하셔서 서대문구의회 누구누구누구 의원님이 가신다는 것을 그쪽에 알리기는 알린...

(○○○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은 하나의 대행기관이지 서대문구의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행기관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서대문구의회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반드시 공식적으로, 대행기관이 한다 해도, 대행기관은 대행기관이고,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의회예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서 공식기관에 우리 공문조차 안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행사에다 맡겨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행사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이름을 맡겨놓은 거랑 똑같은 거에

요. 그 기관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봐야 돼. 우리가 공적으로 보면은.
(○○○ 의원) 이 기관은 번역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넣도록 하겠고요. 여행사랑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행사는 저희가 그냥 주제를 던져요, 도시재생 어디 가고 싶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갖다주고 거기에서 고르라는 건데. 저희는 찾아보고 한 거라서 그런 과정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사전 자료를 미리 받아서 하는 그런 사전 준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갔다와서 보고회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하는 것 까지도. 예전에는 의회 담당직원이 뭉뚱거려서 보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샘플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은평구의회 의장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공무국외출장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은평타임즈 신문에 게재했던 그 내용을 제가 하나 복사를 해 왔는데, 아무리 우리가 내용을 잘 했다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답변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보고왔으면 뭘 해요. 아무 자료가 없는데. 그리고 뭉뚱거려서 직원이 보고한다? 이걸 말이 안되는 거예요. 각자가 느낀 게 다르고 본게 다른데. 본 건 같을지라도 느낀 게 다 다른데. 그러기 때문에 한명 한명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져야 하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요구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 공무국외출장 이후에 그런 내용이 정리가 안된다면 저는 다음부터 무조건 심사할 때 부적합 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를 위한 길이요 의원님들을 위한 길이에요.

(○○○ 의원)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독일, 덴마크, 스웨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되었으므로 추후 서류를 보완해서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재판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그럼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